

세수 감소에 직장인들 근로소득세만 가파르게 올랐다

안도걸 의원 "소득세 연평균 9.6% 오를때 법인세는 4.9% 그쳐"

가계 소득 증가에 비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소득에 비해 법인세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사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했다.



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제 대비 세수 비중을 비교할 경우,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최근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안 의원은 "올해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 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다"면서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계층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아닌 직장인과 자영업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가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프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가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급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직장인의 가계 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감안할 때 근로자 소득세는 가계 소득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 2000억원에서 80조 4000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 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CC 미디어월, 철거후 지하광장에 재설치
지난 30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의 스크린과 철거구조물이 철거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5·18 최후 항쟁지인 도청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이 내려진 미디어월은 기존 설치된 곳에서 약 10미터 아래 지점에 재설치될 예정이다. 새 ACC 미디어월 운영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 6곳 신청...사업 성공 기대감

서구1·남구1·광산구4곳...시, 24일까지 재공모 절차 진행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방식을 적용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에 6곳이 신청하면서,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소각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자치구에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총 6곳이다. 자치구별로 서구1, 남구1, 광산구 4곳이다. 동구와 북구는 1곳도 접수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에 합의하고,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기존 시 주도의 입지선정 방식은 주민의견 수렴 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자치구 주도의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의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부지가 없는 자치구는 자체 후보지를 발굴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절

차를 진행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현재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주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시설 알리기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선진지로 평가받는 하남(유니온파크), 평택(오셀플렉스), 아산(환경과학공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시는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제작한 숏폼 3편을 올리는 등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다양한 형태로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는 입지 후보지를 제출하지 못한 동구와 북구 등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1개소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공원, '청춘문화광장'으로 바뀐다

광주시, 5~20일 '문화누리터' 운영

광주시가 올 가을 광주공원 일대를 걷고 싶고, 가고 싶은 '청춘문화 광장'으로 확 바뀐다.

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광주공원 앞 노상주차장 광장에서 '청춘문화 누리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춘문화누리터는 광주시가 청춘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공원 일대를 장기적으로 걷고 싶고, 가고 싶은 청춘문화 광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젝트다.

청춘문화누리터는 '주말은 청춘'을 주제로 스트리트댄스 배틀, 디제잉 파티, 힙합 음악무대, 인디 음악 공연, 코스튬 플레이 공연, 퓨전타악 공연 등 매해 다른 장르를 골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6명의 청년기획단과 청년디자이너 김꽃비씨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무대를 연출했다.

5일 선보이는 '스트리트댄스_연결'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스트리트댄서들이 광주공원을 찾아 저지소와 토터먼트스 배틀을 연다. 밋고울댄서스 소속 이은지 청년기획자의 연

출로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댄스타임이 마련된다.

6일 '디제잉_공간'에서는 관객이 참여하는 '보이는 라디오'와 DJ 공연, '나도DJ' 체험버스 등 흥겨운 디제잉 파티를 만날 수 있다.

12일 '힙합_불꽃'에선 'EMESS(에메스)', 'MORO(모로)' 등 열렬한 팬덤을 보유한 뮤지션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의 힙합무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 13일에는 '코스튬플레이_이상'을 주제로 웹소설이나 게임,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현실무대에서 재현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19일에는 인기 록밴드들이 함께하는 '인디뮤직_푸름'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날인 20일에는 '퓨전타악_울림'을 통해 다양한 타악기들의 신명나는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 대표 타악팀 열수, 자타공인과 울산의 브라질타악팀 울림블로코가 출연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주관처인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시민과 함께 해온 광주공원이 청년의 문화가 넘실대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교육부 감사 나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휴학승인은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평화하려는 시도"라며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 실 링(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상 수백파 중화
- 음력, 양력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 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9월 25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5억원 중 금2억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3억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20,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50,000주를 3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회사에 주식을 제출하여 줄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주식회사 디자인시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제7층
 제이1707호(문정동, 가든파르크스)
 사내이사 박은선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차량간 400건,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8.13%)

매매가 78억 은행
44억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4억

010-3646-8700